

2016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제3차 직원연수

2016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제3차 직원연수

-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 18일(금) (1박 2일)
- 장 소 : 경기도 용인 파인타운
- 대 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직원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목차

|| 연수 안내 || -----1p

|| 문화정책론 - 2016 문화트렌드분석 II || -----6p

|| 문화행정론 - 비영리회계 I <1~3년차 강의> || -----31p

|| 문화행정론 - 비영리회계 II <3년차 이상 강의> || -----35p

|| 문화기획론 - 기획서작성실무 I || -----37p

|| 조직관리론 - 법과 제규정 이해 II || -----45p

연수안내

연수일정표 및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 문화활동가로서의 전문성 향상
-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과 교육 이력관리 도입을 통한 체계적 교육관리
- 각 지역 문화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추진

□ 사업개요

-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 18일(금) (1박 2일)
- 장 소 : 경기도 용인 파인타운
- 대 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직원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 추진방향

- 지방문화원 역량강화 교육커리큘럼(5개년계획)에 의한 체계적 교육
- 교육이력관리 D/B 프로그램 도입 (이력관리 및 수료증 부여)
-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와 공동 협력 추진

□ 추진내용 및 방법

- 내용 및 커리큘럼

구분	내용	비고
3차 실무자교육	1) 문화정책론 _ 2016 문화트랜드분석 II	
	2) 문화행정론 _ 문화회계 II (비영리회계)	
	3) 문화기획론 _ 기획서작성실무 I	
	4) 조직관리론 _ 법과 제규정 이해 II	
	5) 네트워크담론 _ 아주 많은 말	
수료	이력관리, 수료 후 수료증 교부	

○ 교육이력관리

- _ 직원 연수 참여자 정보 및 교육 수료 여부 파악
- _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여 직원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 _ 향후 직원 교육이력에 따른 체계적 세부 강의 계획 수립

□ 전체 일정표

▶ 11월 17일(목) 1일차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1:00~11:30	30	○ 연수 등록 및 접수, 숙소 배치	
11:30~12:00	30	○ 개회식	
12:00~13:00	60	○ 중식	
13:00~14:30	90	1) 문화정책론 _ 2016 문화트랜드분석 II "문화예술교육 영감 사례 11선"	민병은 (‘지혜로운 봄’대표)
14:30~14:40	10	○ 휴식	
14:40~16:10	90	2) 문화행정론 _ 비영리회계 I "문화재원조성론_보조금과 재원의 성격을 알 면 사업의 흐름이 보인다" <1~3년차 미만>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2) 문화행정론 _ 비영리회계 II "연차별 노하우 공유" <3년차이상> - 강의에서 알 수 없던 연차별 실속 노하우 공유	이미경 (이천 문화원 과장)
16:10~16:20	10	○ 휴식	
16:20~18:30	130	3) 문화기획론 _ 기획서작성실무 I "문화원 사업의 완성도 높이기" - 살찌우기와 다이어트	손영학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사무처장)
18:30~19:30	60	○ 석식	
19:30~	60	○ 네트워크 Party	

▶ 11월 18일(금) 2일차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08:00~09:00	60	○ 조식	
09:00~10:30	90	4) 조직관리론 _ 법과 제규정 이해 II “법과 제규정의 구성과정” - 법과 규정이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필요성 인식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10:30~11:00	30	○ 설문지 작성	
11:00~11:30	30	○ 숙소정리	
11:30~13:00	90	○ 중식	
13:00~16:00	180	5) 네트워크 담론 _ 아주 많은 말 “얽히고 설킨 매듭 풀기”	라운드 테이블
16:00~	-	○ 폐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참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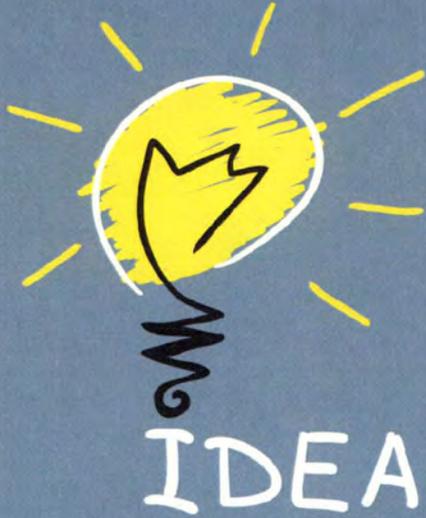
	문화원	이름	성별	직책	연락처
1	가평	신미숙	여자	과장	
2	광명	정희진	여자	부장	
3	광주	이종남	여자	실장	
4	광주	오경영	여자	과장	
5	남양주	정민정	여자	총무팀장	
6	수원	김덕현	남자	주임	
7	수원	김진경	여자	주임	
8	수원	이세희	여자	주임	
9	시흥	최경애	여자	팀장	
10	안산	성노경	남자	사무국장	
11	안산	이우석	여자	업무팀장	
12	양주	김혜라	여자	사무과장	
13	양평	김영희	여자	사무과장	
14	의왕	심옥현	여자	계장	
15	이천	이미경	여자	과장	
16	이천	이선민	남자	팀장	
17	이천	황은영	여자	간사	
18	포천	허혜경	여자	팀장	
19	하남	김혜연	여자	과장	
20	하남	윤재민	남자	주임	

경기도문화원직원교육커리큘럼 5개년계획

	조직관리론	문화행정론	문화기획론	문화정책론
1회차 (2016년상반기)	법과 제규정 이해 I	문화회계 I (수입/지출관리)	문화사례연구 I (비판적평가방법론)	2016 문화트렌드분석 I
2회차 (2016년하반기)	법과 제규정 이해 II	문화회계 II (비영리회계)	기획서작성실무 I	2016 문화트렌드분석 II
3회차 (2017년상반기)	조직커뮤니케이션 I (이사회 등)	문서양식론 I	문화사례연구 II (사업목적과성과관리)	2017 문화트렌드분석 II
4회차 (2017년하반기)	조직커뮤니케이션 II (회원관리 등)	문서양식론 II	기획서작성실무 II	지역문화론
5회차 (2018년상반기)	리서치 실무 I (회원세분화 이론과 사례)	문서관리 I (아카이빙1)	이벤트기획론 I (공연행사)	2018 문화트렌드분석 III
6회차 (2018년하반기)	리서치실무 II (소비자심리학, 사회조사방법론)	문서관리 II (아카이빙2)	이벤트기획론 II (전시/의전)	문화정책일반론 I
7회차 (2019년상반기)	문화비즈니스론 I (마케팅이론일반)	문화회계 III (세무관리)	로드맵구축 I	2019 문화트렌드분석 IV
8회차 (2019년하반기)	문화비즈니스론 II (광고및홍보실무)	문화회계 IV (기타회계) 기부금관리 등	로드맵구축 II	문화정책론 I
9회차 (2020년상반기)	리더십이론과사례	프레젠테이션 I (서류작성법)	프로젝트운영관리 I (교육프로그램개발)	2020 문화트렌드분석 V
10회차 (2020년하반기)	핵심자원육성관리	프레젠테이션 II (핵심과설득)	프로젝트운영관리 II (사례연구방법론)	문화정책론 II

문화정책론 _ 2016문화트렌드분석 II

지혜로운 봄 대표 “민병은”



문화예술교육 영감 사례 10선

지혜로운 봄
대표 민병은

1 도예작가 니시무라의 도전



내 직업의 끝에서 찾는 삶에 대한 근본 물음





● 도예작품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 시작

- 먹기 위한 근본 노동없이 음식을 담은 그릇을 만드는 것, 혹은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던진 물음에서 시작.

- 작품인가 그릇인가-->무엇을 '담는다'는 본질

- 무엇을 담기 위해 무엇이 무엇인 이유 알아가기

; 벼농사---> 밥짓는 도기술 만들기

; 염전 밭에서 소금채취--->소금그릇 만들기

; 동네 할머니 섭외, 풀뜯어 쌀반죽하여 떡만들기 직접 실행, 전통방식의 떡 빚기---> 그릇과 도구의 기능에 대해 다시 바라보기

●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행위의 의미 찾기

; 차를 빚고 마시는 행위를 알기 위해 ---> 다기가 있어야 할 자리 마련, 다례의 의미 알아가는 자리,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마저 생기는 자리가 됨.

; 술을 빚고 마을 축제를 관장하는 사제 초빙, 술에 대한 의미 배움의 자리 마련--->주병과 술잔



●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급자족 파티

노 플랜 파티(No Plan Party: 지역 요리사들 혹은 음식을 만들고 먹는 사람들과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한껏 재량을 펼치는 자연스런 파티로 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들고 익힌다)



● 숲 속 오뚜막 부엌 준비 중

“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은
저기 옆 밭에서 나온 겁니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죠(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먹는 그릇은 저기
아래 공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산 아랫마을 도기가마 굴뚝과
산 속 부뚜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를 것입니다

”

-니시무라-

2. 누구나 학교



배움과 나눔의 플랫폼

누구나학교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학교, 나이, 직업,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필요한 모든 주체가 강의가 된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학습기관에서 미처 배우지 못하는 지혜, 지식, 노하우 등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지식 재능, 소소한 일상, 경험, 재미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상호 협동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배움이 비쌀 이유는 없다

배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지식공유, 지식공헌의 학습문화속에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사람과 마을을 연결한다

우리마을에서 이웃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실현합니다. 우리마을 누구나 선생, 학생이 되고 수원 곳곳이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	여고생 민경이의 재미난 미술사 장학생 성철군의 공부법 예린이와 함께 보는 지식채널-e
●부모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	엄마들의 힐링 스쿨 엄마표 생활영어
●전문가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우리동네 의사선생님의 굿바이 디스크 수요일에 만나는 착한 가정 경제 멘토 재무 상담사와 함께하는 보험다이어트
●솜씨 좋은 이웃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발렌타인데이 수제초콜릿 만들기 졸업맞이 꽃다발 만들기



●기관실무자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볼매녀의 프레지 맛만보기 관장님의 쉽게 배우는 사진 후 보정
●환경지킴이들이 여는 누구나학교	패트 병을 이용한 수경 재배기 만들기 버려진 종이로 만드는 쇼핑백 흙, 식물을 이해하고 친해지기
●시니어가 여는 누구나학교	생생놀이단의 손주와 함께하는 전통놀이마당

정성원.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누구나학교.

"시민과 예술가의 협업과 공감을 통한 일상의 재구성"



○ 프로그램의 특징

● Teaching→Learning

●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 주민기획 프로그램

● (기관의 자원과 능력 및 제한된 기획력이라는 한계)유형에 따른 변별성 없는 프로그램 → 다양성과 세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 기획, 소수진행 가능

● 시민 참여형→시민주도형

● 강의실 배움→삶의 현장이 배움으로 연결

● 전문가들의 지식→개인의 지식과 경험

● 수강생은 수강이 끝나도 수강생→ 리더로 성장

● 특정 강좌 안에 머뭄(심화단계의 종적 이동)→ 연계와 융합(영역간 횡단, 또 다른 배움과 나눔 창출)

3. 희곡 읽기



참여자로 완성되는 프로그램



- 운영단체: 극짓는 사람들 000(창작 극작가들의 단체)
- 사업내용:
 1. 희곡읽기(셰익스피어 작품/ 희극_한 여름밤의 꿈, 부르주아 귀족, 검찰관)
 2. 낭독공연하기
 3. 동네 축제_와우북 페스티벌에서 낭독공연하기
 4. 특강- 1) 해외 낭독공연사례 2) 배우와 함께 "내 목소리로 희곡읽기"
 5. 번외 프로그램: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셰익스피어 연극관람하기
- 진행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요일 저녁 7시30분(특강)

1,2,3,4 사업내용에 따라 기간 및 요일, 시간 구분하여 진행



- 사업특징:
 - 청년(대학잔류학생)들 및 마포구 거주 젊은 층의 참여도 높음 - 저녁 시간대 운영
 - 지역성이 강하게 작용
 - 강사의 진행을 기다리거나 강사의 주도 혹은 스킬 필요하지 않음
 - 함께 읽는다는 기본 활동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시작, 목적 달성 용이
 - 참여자들의 적극성에 따라 진행 수위가 달라지는 말랑말랑한 기획 가능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읽기의 반복활동, 프로그램 접근 용이
- 무엇을 할 것이라는 명확성이 주는 편안함
- 목적과 활동 내용의 명징성
- 낯것 그대로 원재료의 맛을 살린 프로그램의 매력

4. 음악으로 함께 () 보다



경계 흐리기

음악으로 함께 () 보다



- 사업배경

- 시각장애자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동네 오케스트라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시각장애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학교 재학 시절에는 악기를 배울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연주활동을 지속 어려움

- 사업대상 : 장애 비장애 지역 주민

- 진행시간 : 매주 저녁

- 사업특징

- 동네 맹학교에서 악기를 가르친 경험이 있던 강사가 이들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 음악 전공한 청년들을 모아 동네 주민 오케스트라 교육 진행
- 시각장애자 참여자들에게는 미리 연주할 곡을 인터넷에 음원 전송, 악보를 외워 와 참여, 장애 참여자가 비장애 참여자 학습능력 차이 없이 진행.



- 로드매니저 역할만 했던 부모님들의 자연스런 참여, 장애 자녀와 음악으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됨
- oo 시장 길거리 연주 이후 지역 인지도 향상→초청공연 의뢰, 행정의 태도 변화 등
- 입소문에 의한 지역민의 참여 적극적
- 지원사업 종료 후 오케스트라의 지속성을 대비한 설계 고민 중

5. 동시를 낳는 향아리 & 시시콜콜(詩詩 callcall)한 인생상담소



언어를 초과하는 감성의 열림



○프로젝트 명: 인문예술캠프 달빛 감성(충청권)

○진행과정

●첫 번째 워크숍 <향아리>-어른과 아이들 모두참여

- 첫 번째 시간: 시에 대한 이야기 나눔
- 두 번째 시간: 향아리에 담긴 동시로 놀이하는 프로그램
- 세 번째 시간: 참여한 아이들과 어른 들 모두 동시 써보기
- 네 번째 시간: 직접 쓴 동시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

●두 번째 워크숍 <상담소>- 어른 참여

어른들의 고민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를 처방,
본부석에 가서 처방전 제시, 즉석에서 시 전문 프린트



● 시시콜콜 = 시가 내게로 왔다

● 시가 내 삶을 말하고 있음의 경험

● 직관, 예언, 영감, 자기암시 등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놀이로 장난처럼 접근,
드러나지 않는 것의 드러남을 경험

6. 시카고 공동체 이야기



교사-예술가 협력으로 시작된 학교통합 프로젝트

시카고공동체이야기



● 프로젝트2 - <대이동프로젝트>

-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예술로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교육프로그램

- 대이동이란?

;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가난을 피해 북부도시로 이동해간 사건

;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함

; 시카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 대부분이 대이동 이주자들의 후예

- 교사-예술가 워크숍

: 교사, 예술가, 예술학자, 역사가, 커리큘럼컨설턴트 등이 프로젝트설계를 위해 순례여행 기획





- <대이동프로젝트>주요활동

- 1) 남부, 특히 소작농의 생활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표현한다
- 2) 남부 흑인을 시카고로 불러들였던 시카고 디펜더 신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쓴다
- 3) 흑인을 시카고로 불러들인 힘을 표현하는 인간 구조물을 만든다
- 4) 대이동과 관련해서 학생들 혹은 부모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발표하고 이유를 토론한다
- 5) 내가 처음 시카고에 도착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서 표현한다. 단 지도에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 6) 미시시피 델타의 소작농과 시카고 시민의 생활을 비교하는 도표를 완성한다
- 7) 1900, 1950, 1980, 2003년 인구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고 그 표를 보고 토론한다
- 8) 1919, 1950, 1980, 현재 시카고에 사는 인종분포를 알아보고 토론한다
- 9) 당시의 생활을 표현한 시와 노래를 학습하고 의미를 연구한다
- 10) 대이동과 관련된 정치만화를 연구하고 설명한다
- 11) 오래된 사진을 보고 당시의 생활을 서로 이야기한다
- 12) 최종과제: 지금까지 배우고 느낀 내용을 시, 노래, 연극, 무용, 멀티미디어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 아가시 학교의 연극 수업

; <편도: 북으로의 대이동> 최종 과제

; 학습한 내용을 공동작품으로 정리

; 7학년과 4학년 중심으로 진행

희곡 : 대이동을 다룬 책과 학생들의 편지, 시 등을 사용

음악: 음악교사가 흑인영가를 타악기 곡으로 편곡

무대배경: 미술교사의 지도로 4학년생 제작

나레이션,노래,연기: 7학년생 조별 활동

단체무용 : 무용교사지도로 4학년생



7. 아리마후지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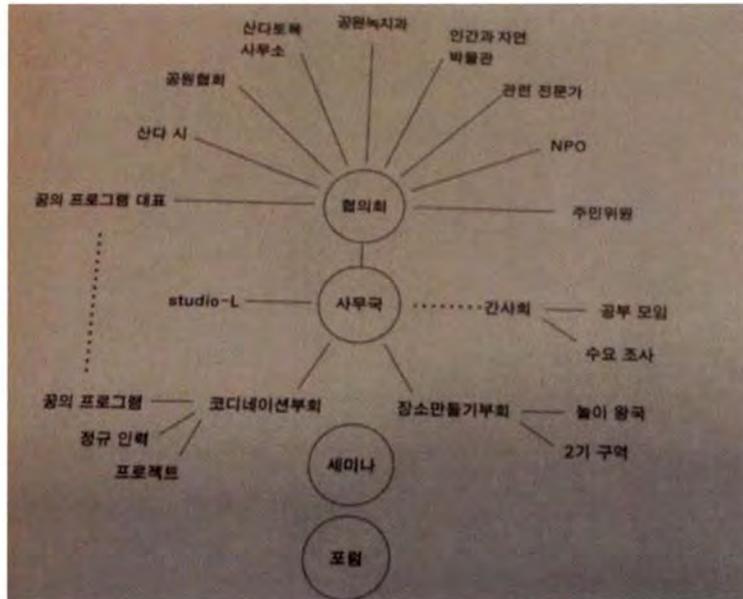
만들지 않는 디자인



아리마후지공원



-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 그러나 주민이 찾지 않는 공원
- 공원매니지먼트의 필요성
 - 디즈니랜드의 캐스트에 주목: cast 를 통한 guest 증대(수익증대)
- 공원매니지먼트를 위한 모임
 - 인근박물관 연구원, 행정담당자, 지역 NPO, 자원봉사단, 대학생들이 모여 공원매니지먼트 공부 8차례 시작
 - 1회 공원의 입지 환경과 운영프로그램
 - 2회 공원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법
 - 3회 NPO운영 및 육성방법
 - 4회 공원의 관계성 마케팅
 - 5회 신규 주민의 교류방법
 - 6회 NPO를 지원하는 NPO법인 운영방법
 - 7회 문화 프로그램과 공원의 미래상
 - 8회 곤충 채집부터 도시 정책까지



01.きっかけ

studio-L의 대표である山崎亮は、設計事務所に勤め建築やランドスケープのデザインの仕事にかかわっていました。あるとき、公園に来てもらうためのプログラムを公園自ら考えて運営していく仕組みをつくる、有馬富士公園のパークマネジメントの仕事にかかわるようになります。それは、建物や公園という「ハード」の物理的なデザインを覚えることよりも、その場所を利用し自ら運営するコミュニティ＝「ソフト」のマネジメントをしていく仕事でした。人のつながりが失われていく社会状況のなかで、コミュニティがもつ力こそ、状況を変えていく鍵なのではないかと感じるようになります。



8. 호즈미 제재소 프로젝트



'함께' 과제를 해결하다



호즈미제재소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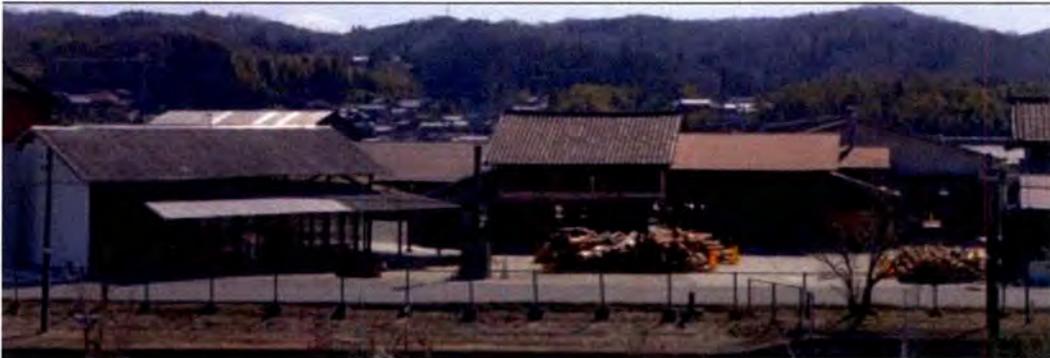


● 제재소 공원 제안 배경

- 20년 이상 된 제재소 후계자 없음, 지역에게 환원하고자 상속자의 공원제안
- 제재소를 철거하고 제재소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모순과 고민
- 컨셉 변경 : '공원' → '사람이 찾아와 제재소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

● 프로젝트 기획_지역 연계

- 제재소 입구 카페 NPO법인 '안주인 모임'에서 채소로 만든 식사
- 현지 온천목욕탕과 연계
- 인근지역 활동 건축가 6명에게 목재 오두막 의뢰, 건물 건축에 학생들 참여(현재 200명의 학생이 커뮤니티에 등록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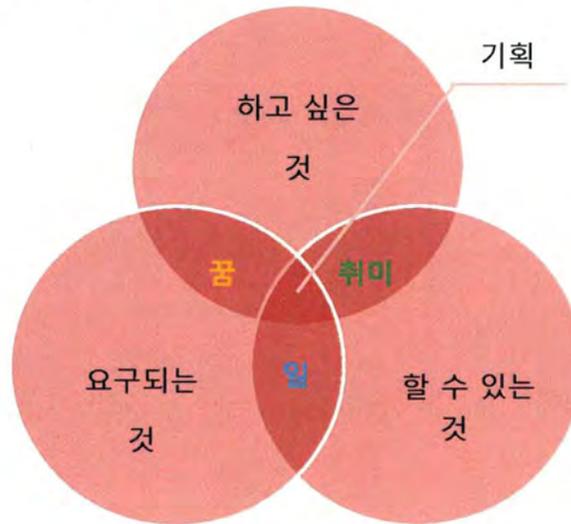


- 세부 프로그램 계획
 - 목재 텐트 6채에 6팀이 참여, 4주간 일정
 - 참여 팀 아이스브레이크 게임, - 삼림 탐사와 벌목, - 통나무손질, -가구 제작
- '천천히' 추진하는 프로젝트
 - 마을사람들의 마음 속도 유의
 - 시범시행→조정→변경 등의 과정 밟기(있는 재료와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활용)
 - 관계자 폭 확대(지역 가구디자이너 섭외, 학생들의 연계 강화)
 - 가능성 모색 (목재 접시 포크 나이프 제작과 갤러리를 통한 판매 등)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기획



9. 동네 이야기를 전시하다



수집이 창조가 될 때



●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전시 프로젝트

-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
- 동네 사람들 이야기 구술 채록, 동네만이 갖는 특별함 추출

● 발견된 전시 아이템 1 : 3대째 운영하고 있는 70년 된 미미 사진관

- 1960년대~ 90년대까지 사진 원판 보관
- OO 동네의 보통 얼굴 발굴



● 발견된 전시 아이템 2 : 조소 예술작가

- 작품 아닌 작품 설치
- 작업 소리전시



10. 대동 모놀로그



마을사람들 이야기가 공연이 될 때

대동모놀로그



기획회의

문학, 이야기의 힘을 믿고

마을이 살아있다 =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낼 것이다"(문자가 가지지 못한 힘)

지역연계

사람을 찾고 마을을 찾고 이야기를 찾고

함께할 작가 찾기
말이 살아있는 마을 찾기
지역기관, 대학 연계하기

중간발표

역할과 협력

참여학생들과 각색, 연출, 연습
할머니 원작자들의 피드백과 적극참여

최종발표 및 문집발간

대동 모놀로그

전문 연극인들과 할머니들의 만남
문집발간과 작품전시



11.가능한 변화들



짚 풀로 놀이터 도전

가능한 변화들





적은 사람들이
수많은 작은 곳에서
작지만 많은 일들을 만들어가면
세계는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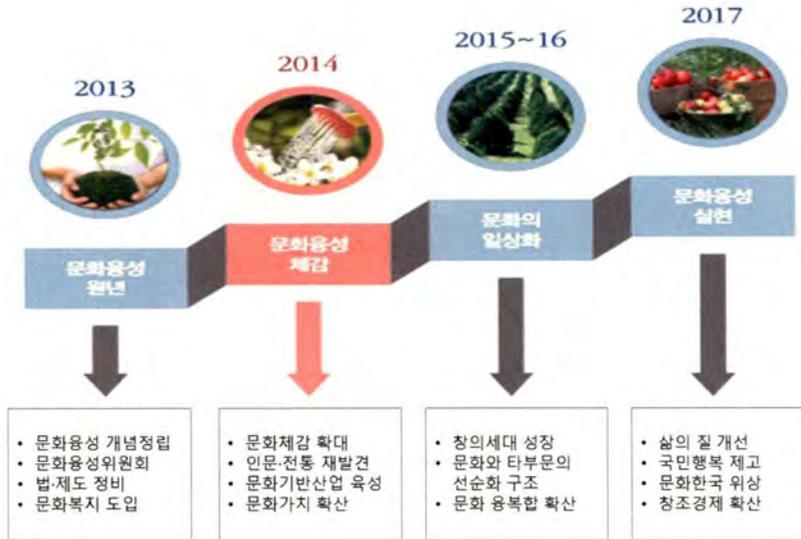


고맙습니다

문화행정론 _ 비영리회계 I <1~3년차강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국정과제



대한한국문화체육관련예산 _ 기금포함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 | | | |
|-----------|-----------|-------------|
| 예술의전당 |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 세종학당재단 | 아시아문화개발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국립극단	명동정동극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자료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재)생활문화진흥원

문화예술지원금 지원구조



- 문화정책기조
1. 문화예술지원
 2. 문화콘텐츠
 3. 문화예술교육
 4. 문화바우처
 5. 생활문화
 6. 문화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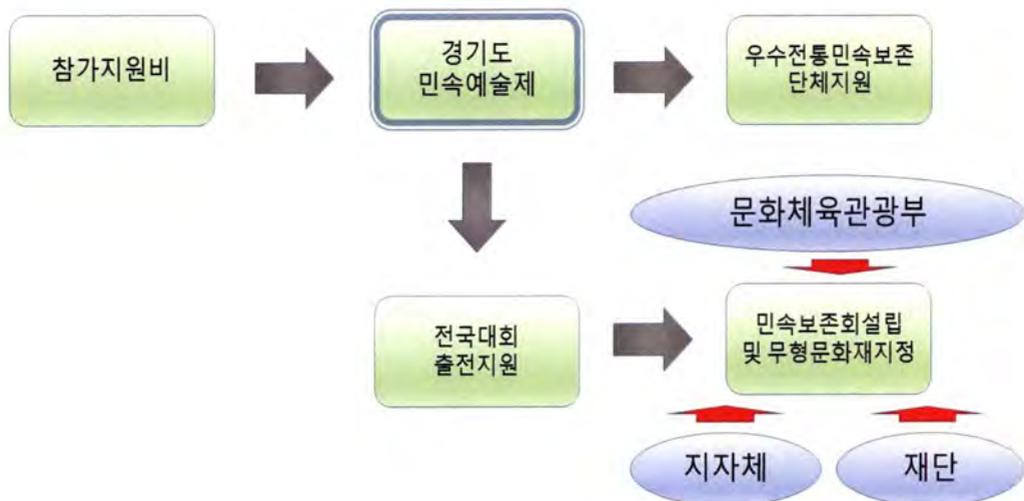
2016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자원구성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항목	2016년예산	관항목	2016년예산
합계	1,883,791,081	합계	8,420,000,000
지체자금(자세수입)	150,791,081	국고보조금	6,807,000,000
회비수입	106,200,00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4,677,000,000
이월금	8,567,568	살바문화페스티벌 및 박람회	1,000,000,000
광고수입	1,100,000	문화체육자원봉사활동화	500,000,000
이자수입	26,230	지방문화원 참여활성화 간접지원	130,000,000
잡수입	1,897,283	특별가급	1,090,000,000
협찬금	33,000,000	생활문화공동체단말기	1,090,000,000
국고보조금	1,733,000,000	체육가급	245,000,000
사업활동비지원	1,733,000,000	문화이모저	245,000,000
		관광가급	788,000,000
		한시문화진흥 지원	788,000,000

2016년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자원구성현황

장관항목	예산액
일반회계세입	1,106,959,767
일반세입	108,259,767
1. 경상수입	62,759,767
회원회비	40,900,000
이월금	8,190,767
이자수입	5,000
찬조금	17,000,000
잡수입	1,664,000
2. 보조금수입	40,500,000
연합회 지원금	25,500,000
사회단체보조금	15,000,000
문예진흥 사업비	998,700,000
보조사업비	998,700,000
도비보조사업	790,000,000
연합회 지원금	68,700,000
재단 지원금	140,000,000

민속예술제 자원구성



문화행정론 _ 비영리회계Ⅱ <3년차 이상 강의>

이천문화원 과장 “이미경”

“연차별 노하우 공유” -강의에서 알 수 없던 연차별 실속 노하우 공유

이천문화원에서 실제 사용 중인 회계 방법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진행하여 보안상 자료집에 실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론 _ 기획서작성실무 I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손영학”

2016년 문화원 사업계획서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6년 사업**
- 1) 『대구의 옛글』 발간
 - - 수록 글 선정 및 국역 및 감수
 - - 발간: 12월
- 2) 대구 차 문화제
 - - 심포지엄, 차 예술제, 찻자리 & 차 시음 체험 등
 - - 행사일: 5월 중 예정
- 3) 대구 바로 알기 향토탐방
 - - 청소년 문화의 집, 어학교육원(외국인학생)
 - - 6차 탐방 진행: 총 300명
- 4) 전통문화지 달구벌문화 창간호 발간
 - - 구성: 8개 구·군문화원 행사 소식 및 박물관, 향교, 무형문화재, 전통예술(공예) 등 전통문화 관련 행사 및 소식 수록
 - - 발간: 12월 중

대구광역시구군문화원 현황

No.	문화원명	설립연도	직원수	독립일사	위치
*	연합회	2001	3	-	대구문화예술회관
1	중구문화원	1991	2	-	봉산문화회관
2	남구문화원	1998	2	-	대덕문화전당
3	동구팔공문화원	2000	2	○	
4	서구문화원	2000	2	-	서구문화회관
5	북구문화원	2000	2	-	어울아트센터
6	달서구문화원	2000	2	-	웃는얼굴아트센터
7	수성문화원	2005	3	-	두산평생학습센터
8	달성문화원	1985	5	○	

중구 문화원

세 부 사 업 명	장 소	일 시	내 용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여류 한시백일장	국채 보상 공원	5월 중	여류 한시 작가 발굴과 여류 전통문화 재조명의 일환으로, 전국여류 한시 백일장을 개최.	5,000	-	-	-	5,000
찾아가는 문화마당	중구 아파트단지	9월 중	신축 아파트 등 마을단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주민화합 및 문화 향유기회 제공	6,000	-	-	-	6,000
우리가곡 부르기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3~12월	중구 출신 작곡가, 음악가의 가곡 부르기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가곡들이 유지 계승 되도록 노력	-	-	-	15,500	15,500
문화탐방	---	5월 중	문화유적 탐방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정서 함양	3,000	-	-	-	3,000
문화원 책발간	-	11월 중	대구 문화사료를 정리하고, 문화원의 발자취를 책으로 발간하여 후세에 전달	2,308				2,308
문화원 합창고실	봉산문화회관	연중	합창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 세미나 개최	10,000				10,000
문화 아카데미	봉산문화회관	연중	주민들의 여가를 활용하고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키위한 문화강좌 개설	4,567				4,567

단위: 천원

구 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0	0	15,500 (운영비 10,000별도)	56,375

남구 문화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참가규모
전통 교양강좌	향토사료 조사연구 (1월4일~12월31)	500명
향토사료 조사연구	전통문화관련 책 발간 사업(년 중)	-
문화유적 답사	향토문화탐방 / 3회 (3월~12월)	240명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2회 (5월~12월)	200명
찾아가는 문화원 한마당 공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5월 중)	700명
한국전통 자문화체험	우리 차 문화유산의 이해 / 2회(5월~12월)	150명
찾아가는 도예 체험교실	전통 도예문화의 제작과 이해 (7월 중)	60명
가을음악회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공연 (10월 중)	800명
신진작가 발굴초대 기획전	신진 작가 발굴 초대 기획전 (11월 중)	200명
청춘합창단	남구 어르신 합창활동 (3월2일~11월30일)	1,000명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25,292	0	0	56,167

동구 문화원

세부사업명	장소	일시	내용	참가규모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팔공산 사랑운동	대구동구, 팔공산 일대	5~12월	팔공산 사랑 홍보물 제작 배포, 팔공산사랑캠페인운동 등	5,000명	4,500	4,500	-	1,000	10,000
문화가 있는 이야기장길	아양류	1~12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역의 예술인과의 만남전시, 강좌, 토크 등	500명	3,000	1,000	-	1,000	5,000
역사 문화기행	미정	5월 중 (1회) 10월 중 (2회)	동구주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	180명	3,400	-	-	1,000	4,400
발명명상 아카데미	동화사 섭법전	10월 중 5회	팔공산과 동구지역에 관한 인문학 이야기	800명	4,000	500	-	1,000	5,500
동구의 현재모습 사진찍기	동구내	연중	동구의 변화 하는 현재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자료화 한다.	-	2,000	-	-	-	2,000
회원전	동구팔공 문화원2층	11월 중 7일간	공연⇒ 초청공연 아코디언반 전시⇒ 천연염색, 생활도예, 야생화, 가죽공예, 단정, 유화 등	200명	-	1,500	-	-	1,500
세계질문화예술 아카데미	동구팔공 문화원	1~12월 매주 월~금요일	요가, 천연염색, 서양화 아코디언, 가죽공예, 다도, 가야금, 단가, 하모니카등	500명	11,208	2,792	-	10,000	24,000
동구 팔공포럼	미정	6월중	동구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포럼	200명	2,767	-	-	1,000	3,767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10,292	0	15,000	56,167

서구 문화원

세부사업명	장소	내용	참가규모	시비+국비	자부담	계
제13회 민요고실	서구문화회관 취미고실 V	고령화 사회를 맞아, 관내 50~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선조들의 음악을 배움으로서, 우리음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 있는 노년의 삶을 갖게 하며, 정서를 순화하고자 함. (4월~7월)	100여명	2,930	-	2,930
제29자 문화유신기행	미정	문화유신기행을 통해 조상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전통문화의 자긍심과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함.(5월중)	130여명	4,296	1,240	5,536
제12회 청소년문화학교	경북과대학 전통문화체험학교, 다부동 6.25전직기념관	서구관내의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편부편모 이하의 조동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우리문화 소중함의 고취와 전쟁역사의 현장방문으로 교훈을 삼고자 함.(8월중)	40여명	890	-	890
제3회명사 초청 대강연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서구에 한국의 명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9월중)	600여명	4,755	-	4,755
제15회 전국 날의복홍강연대회	서구문화회관	우리 서구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므로,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9월중)	900여명	1,000	-	1,000
우수 공연 단체 초청 공연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우수한 공연 단체를 초청하여 서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함.(10월중)	500여명	12,778	-	12,778
말공 사진가회 사진전시회	서구 문화회관 전시실	서구 및 대구시의 사진 분야에 상당한 기량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 서구문화원 회원들과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통하여 문화마인드를 증진시키고 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함.(11월중)	1,000여명	3,058	-	3,058
남의문화 16호 발간	-	현재 진행된 다양한 사업내용과 문화관련 투고의 글, 체험수기와 새로운 서구 향토발굴내용을 실어 발간하고자 함. 서구주민 700여명, 관내 200여 단체, 전국문화원 연합회 230여 곳.(12월중)	1,200부	12,700	-	12,700

단위: 천원

구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10,292	0	1,240	42,407

북구 문화원

세부사업명	장소	일시	내용	시비+구비	계
전통문화 아카데미 한지공예	대구북구문화원 회의실	4~11월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강좌 한지공예(24주)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수업을 할 예정이다.	4,040	4,040
전통문화 아카데미 조각보 바느질수업	대구북구문화원 회의실	4~6월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강좌 조각보 바느질(12주)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수업을 할 예정이다.	1,750	1,750
음악치료 <드림힐링>	대구보건대학교 회의실	5월	남녀노스 누구나 선포하는 다양한 타악기 합주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음악 공동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통고 정서적으로 안정적 변화, 가족 구성원의 소통 증진, 음악적 표현 기술 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435	2,435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톨기타교실	구암중학교 음악실	5~10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톨기타를 통해서 악기도 배우고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자 함.	1,700	1,700
가족유지력	어울아트센터 공연장	6월중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어린 시절 즐겨 읽었던 동화를 보다 재미있게 연극으로 꾸며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6,450	6,450
역사문화탐방	미정	6월중	북구민을 대상으로 타 지역의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알기.	1,610	1,610
미술교육전시 '동양의 눈, 서양의 눈'	대구보건대학교 인양박물관	7월	'동양의 눈, 서양의 눈'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15세기 이전부터 현대미술까지 시대별, 사조별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미술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9,000	9,000
전통문화 아카데미 홍자데이불수업	대구북구문화원 회의실	9~11월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자데이불(12주) 수업을 할 예정이다.	1,750	1,750
찾아가는 상영회	대구보건대학교 인양홀	10월	대구여성영화제의 일환으로 노동, 인권, 성폭력, 자본권력에 의한 폭력문제 등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학생들이 관람 후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공동사회를 상상하여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영상들도 상영할 예정.	3,475	3,475
제13회 북구문화원 회원문화탐방	인근문화유적지 관람	10월	북구문화원 회원들 대상으로 지역의 유적을 관람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문화원의 회원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취지임.	2,100	2,100
북구변천사 사진공모전 및 기록집	미정	11월	1980년부터 북구의 변천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공모하여 전시하고 기록집을 제작한다.	6,857	6,857

단위: 천원

구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10,292	0	0	41,167

달서구 문화원

세부사업명	장소	일시	내용	사업비	위탁/공모/ 지원사업비
제16회 달서가요제	코요롱아외음악당	6월	지역민의 화합과제 형식의 가요경연, 화합무대, 축하공연	20,279	-
제17회 전국문화사진 공모전 및 제10회 초대작가전시회	웃는얼굴아트센터 두류점갤러리	7월	사진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의 사진문화발전에 기여키 위해, 문화사진공모전 및 초대작가전을 동시에 진행	12,858	-
제13회 화촌대구학생 서예공모전	웃는얼굴아트센터 두류점갤러리	11월	지역 대표작가 아포명의 서예 공모전으로 지역학생 대상, 서예 보급 및 진흥 목적 개최	5,482	-
가야금교실	달서구문화원 강의실	3월 ~ 12월	무료 전통문화강좌, 가야금 10개월 과정	2,870	-
서예교실	달서구문화원 강의실	3월 ~ 12월	무료 전통문화강좌, 가야금 10개월 과정	2,730	-
한문교실	달서구문화원 강의실	3월 ~ 12월	무료 전통문화강좌, 가야금 10개월 과정	2,800	-
사진교실	달서구문화원 강의실	3월 ~ 12월	무료 전통문화강좌, 가야금 10개월 과정	2,730	-
제61회 달서문화탐방	대구 전 지역	3월 ~ 10월	대구지역의 문화재, 문화유적지 탐방(1회 개최)	174	-
2016 고학제협탈사	달서구지역	3월~10월	달서구 조상들이 살아온 고학현장을 체험해봄으로써 뿌리고육과 향토문화 바로 알기에 기여함	1,244	-
제14회 달배달맞이축제	월광수변공원	2월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유민속문화어울마당, 기원제, 달집태우기 등	-	27,000
2016 달서문화콘서트	학교, 공원 지하 열악 등	연중	동네예술인, 생활예술인,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별, 테마별 공연개최	-	76,313
2016 선사시대 문화탐방 프로그램	달서구 선사유적지 일원	연중	달서구 문화해설사가 동행하는 선사시대탐방프로그램	-	85,000
2016 선사문화 체험판마당	달서구 선사유적지	연중	달서구 관내의 선사유적지를 알리기 위한 체험행사	-	18,000
향토사료실운영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2층	연중	달서구의 중요 무형, 유형문화재에 대한 안내 및 전시	-	-

단위: 천원

구분	보조금	위탁/공모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108,725	208,813	37,745	355,283

수성 문화원

세부사업명	장소	일시	내용	참가규모	계
당제	범물동 당제	2월	전통문화 재현 행사	150명	10,000
전시회	갤러리수성	연중	기획전 및 초대전	600명	6,000
수성문화인의날	수성문화원	11월 중	수성문화원 개원 기념식 유공자 포상	250명	5,000
명사초청특강	-	연중	문화학교 운영 및 문화유산 탐방	200명	7,000
문화탐방	-	연중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강연	300명	2,000
소식지	-	연 4회	수성문화원 소식지 발간	1,500명	6,400
수성문화지	-	연중 1회	지역의 순수문화예술 서적 발간	2,000명	9,700
기타사업비	수성문화원	연중	기타사업	-	3,067

단위: 천원

구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10,292	0	0	41,167

달성문화원

세부사업명	장소	일시	내용	참가규모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제29회 미술실기 대회 및 서예실기대회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	4~5월 중	학교장 추천 관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동호인들이 출전하고 결과에 따라 시상	250명	5,000	5,000	-	3,000	10,000
제21회 사직제	현충상리 제육공원사직단	10월	토지와 국익을 관장하는 신에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례를 지냄	-	1,400	1,400	-	-	2,800
제21회 달성문화예술행사	달성문화원 1층 전시실	10.8~11.7	발표작가들의 미술서예공예, 꽃꽂이 등 다양한 작품 전시	-	10,200	10,200	-	1,500	25,400
제31회 달성문화예술행사 경선문화학교	달성문화원 2층 강의실	7.25~8.5	관내 학교장 추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예, 민요, 사물놀이 등 강습	70명	2,100	2,100	-	300	4,500
공연사업	달성문화원 공연장	10월~11월 중	민요, 사물놀이, 색소폰 등 공연	달성군민	11,500	11,500	-	-	23,000
제26회 문화탐방	각 읍면 본원에 서 신청	10.1~11.30	관내 및 전국 유명 유적지 순례	500명	-	6,000	-	1,500	8,500
제8회 다문화가족 노래장기 자랑대회	달성문화원 공연장	9.9	다문화 가정 주민을 대상으로 노래와 장기 자랑 대회 및 다과회	관내 다문화가족	675	4,125	-	-	4,800
중국어 실시 문화관 문화교류	달성문화원 일원	연중	관내 주요 행사시 축하 방문 및 문화교류 활성화	연립시문화원회원들	-	20,000	-	-	20,000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구비	기금	자부담	계
사업 지원비	30,875	60,325	0	6,300	97,500

문화원 별 발간자료집 목록

수성문화원	2011.03.17 양포문화연구소 헌편의 2008년 『대구의 뿌리, 수성』 발간 2010년 『유수산성 범이산봉수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2011년 『수성구 문화유적 문화재』 발간	2012년 『고산포성지역 명소와 방안』 발간 2013년 『수성사적지외배』 발간 2014년 『수성구 옛 사진 공모전』 발간 2015년 『수성의 금석문』 발간
동구달성문화원	2004 『팔중산의 풀꽃 이야기』 (김기현 지음) 2005 『팔중산의 문화유산』 (최종만 사진, 주본본 감수) 2006 『황이도 돌아왔다』 (이근욱 지음) 2009 『중산봉요』 (김기현, 서영태 지음) 2009 『팔중산 문화재 기행』 (이근욱의 여행)	2010 『중신을 만나다』 (채경, 박정희 지음) 2011 『올레길』 팔중산을 만나다. (안재홍, 박효진 지음) 2012 『중구의 오래된 이야기』 (김기현 지음) 2014 『황천의 중산전투』 (이성하, 그림, 이근욱 역음)
중구문화원	간돌바위 1호~5호 『태백의 푸른물길』	『지사유물전도록』 『대구의 금석문』
서구문화원	2001~2016(예정) 날의문화 1호~16호 2009 『대구 서구 향토사』 2010 『비산 천황여제의 전승과 발견』	
남구문화원	2000년 『대구음악사』 2002년 『대구의 암산』 2003년 『한국의 문양』 (홍기) 2010년 『남구문화원 10년사』	『신라석탑의 예술세계』 『찾아가는 팔토사교육』 2013년 『투사들의 대명단 터 조사사업보고서』 2013년 『신라석탑의 장식세계』

제16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회당 장석영 선생의 학문과 사상



일시 | 2016. 11. 25(금) 14:00 | 주최 |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장소 | 칠곡군민회관 3층 대강당 | 후원 | 경상북도, 칠곡문화원

행사일정

1부 기념식(14:00 ~ 14:20)
 - 개회 및 축사

2부 학술발표회(14:20 ~ 16:30)

- 제1발표 회당 장석영의 시대와 그의 독립운동 김희근(안동대학교)
- 제2발표 회당 장석영의 만주체험 정우락(성북대학교)
- 제3발표 회당 장석영의 산문세계 김윤조(계명대학교)
- 제4발표 회당 장석영의 시세계 최은주(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매년 10월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주최,
 제24회 봉화문화원 주관, 봉화군
 군민회관에서 열림
 제23회 영양문화원 주관 영양공설
 운동장에서 열림





-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출발, 작년까지 190회 공연 47만명 방문
 - 오페라 단일장르 유일무이 대기록. 정부 관광사업 '최우수 등급' 받아
-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 올 10주년...전년비 관객 30% 증가
 - '금발이 너무해' 객석점유율 90%. '투란도트'와 흥행 양대산맥 위용
- ◆ 대구시 관계자는
 - "지자체 전략사업 중 공연 분야 육성은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
 - 대구가 비교 우위의 공연 인프라와 수요,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문화 예술단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뮤지컬의 '탈(脫)서울화'를 이뤄 지방 뮤지컬 시장의 1번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DGFC 사업별사이트

- 문화누리
- 공연인력마켓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 가창창작스튜디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대구축제닷컴
- 대구문화예술지원교육센터
- 범어아트스트리트
- 대구예술발전소
- 대구문학관
-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 생활문화홈페이지

조직관리론 _ 법과 제규정 이해Ⅱ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

“지방문화원의 법과 조례, 그리고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바꾸어야 한다”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문제1. 문화원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서 법과 제 규정이 필요한 이유와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 대다수 지방문화원의 법과 제 규정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라.

(규정제정 현황 및 항목 파악)

문제2. 문화원 직원의 더 나은 근무조건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논하라.

문화환경 및 문화정책의 변화

1. 지역문화를 둘러싼 법과 제도

○ 최근 지역의 예술·문화는 ;

- 지역문화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지역과 도시 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함(창조도시, 문화도시).
- 한편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적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경쟁, 지역문화의 획일화, 지역문화 정체성의 상실, 정치적 결정의 오류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

○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

- 지역문화의 본질상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중요성이

매우 큼. 이러한 맥락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문화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의 발전적 개정이 필요하며, 공동의 개선노력도 필요.

- 지역의 예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과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가 필수적임. 조례는 지역의 예술문화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각종 계획수립과 예산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내용별 구분) ;

- ①문화예술 일반 및 문화재 일반, ②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지구 지정, ③문화시설 관련, ④문화재단, ⑤문화예술단체, ⑥문화예술 산업, ⑦축제 지원, ⑧문화 조직, ⑨행사조직위원회 관련, ⑩재원 마련, ⑪문화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⑫정관 및 디자인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3대 법률 제정

- 문화기본법 : 한국사회 전반에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기본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고 지역문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 문화영역의 확장

- 문화를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정의에서 벗어나 유네스코가 정의하고 있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

○ 문화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향유자 중심으로 전환

-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문예술인 등 문화예술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라면, 문화향유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를 장려하는

차원으로 전환

4.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내용

○ 지역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의 인식

- 지역성에 기반한다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의미
- 지역문화유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뜻하며,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행하는 유형·무형의 활동과 예술 작품을 뜻함. 따라서 지역문화에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지역과 문화의 화학작용이 필요.

○ 생활문화의 진흥과 활성화

-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참여해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법에서는 주민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향유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문화정책이 지역 커뮤니티의 생활밀착형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29개의 연계망•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회원확보 등 인적자원 축적• 풍부한 향토문화자원 발굴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조직 및 전문인력 취약• 결맞은 문화원 교육의 다양성 부족• 향토문화자원을 콘텐츠화, 브랜드화하는 기획력 부족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문화원진흥법(1994)에 근거한 법정단체(공공성 확보)• 지역고유의 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 증대• 주민공동체 문화활동의 지속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의 영향력 약화•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이 없음• 지역문화재단 등 경쟁단체의 대두

출처 : 2013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 중장기계획

5.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97. 12. 13. 지방문화원 진흥법

第8條(地方文化院의 사업) 地方文化院은 다음 各號의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한다.

1. 地域固有文化의 啓發·보급·보존·傳承 및 宣揚
2. 郷土史의 調査·研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3. 地域文化行事의 開催
4. 文化에 관한 資料의 蒐集·보존 및 보급
5. 地域傳統文化의 國內·外 交流
6. 地域文化에 관한 社會教育活動
7. 地域環境保存 등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活動
8.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14. 1. 23.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1조(목적)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 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생략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과제

1) 지역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 시행계획에는 지역문화의 현황과 실태조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교류·협력,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도시·문화마을·문화지구에 대한 계획 등과 같은 사항 포함 필요.

2) 지역에 필요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운영되는 시설로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이에 해당되며, 문화예술회관, 지역자치센터, 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마을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시설이 포함됨.
- 생활문화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또 지속적으로 확충시켜나가야 함. 많은 지방문화원들이 낙후된 건물, 공간부족으로 동아리들이 다른 기관의 시설을 전전하고 있음.
- 정부는 올해부터 동네의 폐교나 노후한 시설을 개조하여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할 계획임. 각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 필요.

3)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간 역할 정립과 협력 필요

- 지역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시설, 민간문화예술단체 등 관련단체간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업영역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그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그 근거를 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시행,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자원과 기금의 배분, 그리고 신규사업의 모델링이나 인큐베이팅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 발효되며, 시행령도 함께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을 실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므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반영해야 함.

- ① 시행계획 수립시 시민과 문화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
- ②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
- ③ 전통문화의 생활화, 수준 높은 생활문화, 창의적인 문화예술강좌의 설치 및 운영
- ④ 청소년, 다문화가족, 빈곤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을 활용한 인문소양교육

5) 지역학의 체계적 준비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인 지역학을 준비해야 하며,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지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필요.
- 지역문화아카이브의 핵심은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문화자료를 사용자 중심으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자원화'하는 것임.
-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이와 같은 아카이브화 작업은 지역문화와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기술이 결합된 융합적 지식과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6) 문화도시 지정 신청(학습도시, 창의도시, 문화도시)

-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지정 => 문화도시는 도시경쟁력의 추세
-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 문화도시 이미지의 선점 필요
-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됨.
- 서울, 수원 등 8개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세계역사문화), 부여공주(역사문화), 부산(영상문화), 춘천(애니메이션) 등은 문화도시를 표방, 전주의 경우 차별화된 문화도시 전략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지방문화원 제 규정 제정 - 안동문화원의 예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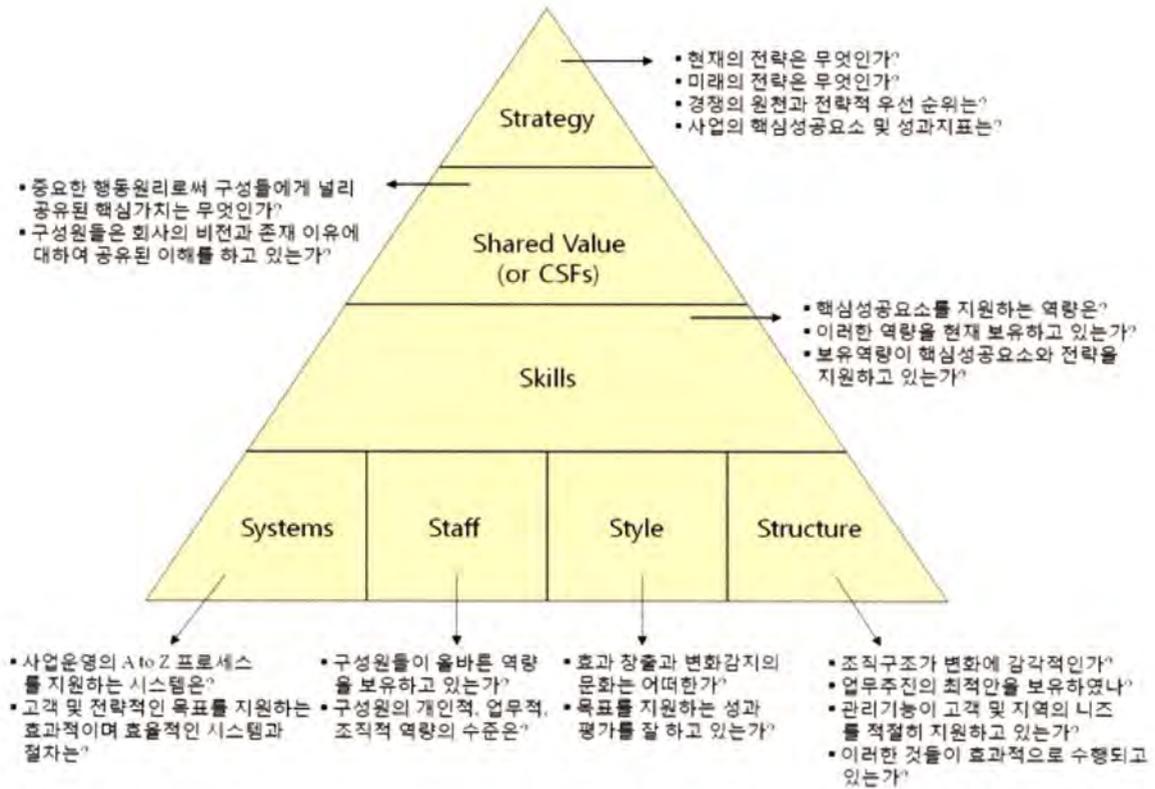
- ♣ 안동문화원연혁 1
- ♣ 지방문화원진흥법 5
-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17
- ♣ 안동문화원 정관 25
- ♣ 안동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9
- ♣ 안동문화원 임원선거관리 규정 45
- ♣ 안동문화원 제규정 51
 - 1. 제규정 관리 53
 - 2. 직제규정 57
 - 3. 직원복무 63
 - 4. 인사관리 75
 - 5. 보수 및 수당 89
 - 6. 회계 97
 - 7. 여비 109
 - 8. 회의수당 117
 - 9. 물품관리 121
 - 10. 이사회 운영 129
 - 11. 회원관리 135
 - 12. 문서처리 141
 - 13. 안동문화원기 171
 - 14. 위임전결 175
 - 15. 인장사용 183
- ♣ 규정집 관리 요령 189

2015 지방문화원 직원연수 - 조별 워크숍

□ 주제별 진행 내용

구분	주제	나눌 이야기
1분임	지방문화원, 찬찬히 알아보기 A to Z - 신입직원 대상 지역문화전	- 입사동기, 그리고 문화원에서의 하루 (하루 일과에 대한 스토리 텔링)
2분임	문기관으로써의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기능, 역할과 비전에 대한 토론. 지역문화 활동가로	- 문화원 살이, 현실과 이상 차이 -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지방문화원의 이야기 (조직,사업, 역할과 기능, 이에따른 비전 등)
3분임	서의 비전 찾기 및 실무자로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외로운 직업?! 우리에게 500명 동지가 있다. - 지역문화일꾼(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4분임	지방문화원 차세대 성장동력 찾기 -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속에서 그간의 지방문화원 운영노하우	- 문화원 살이, 현실과 이상 차이 (우아한 백조(?)의 삶에 대해...) - 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5분임	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방문화원 성 격에 맞는 차세대 사업 제안	/ 힘들었던 순간은? - 지방문화원다운 사업이란 어떤 것? - 향후 지방문화원에서 해나가야 할 사업?
6분임	지방문화원과 나, 상생의 길 찾기 -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문화 원과 함께 해온 시간들을 돌이 켜 보고, 그간 경험을 바탕으 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지방 문화원 발전 방향 제언 도출	- 자기 소개 및 장기근속자로서 문화원과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 장기근속하게 만든 문화원의 매력, 일의 매력? -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 본 베테랑 으로서 문화원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

지방문화원의 조직역량 혁신 (7S 분석)



□ 조직역량 혁신의 방향

- 전략(Stratgy) : 실행가능한 이행수단의 제시, 구체적 로드맵 필요
- 가치공유(Shared Value) : 문화도시 비전의 공유
- 핵심역량(Skills) : 풍부한 경험, 전문성과 기획력, 통합적 시각 요청
- 효율적 체계(System) : 문화서비스의 신속한 전달 및 실행체계 구축
- 구성원(Staff) :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춘 인재의 발굴 필요
- 일하는 방식(Style) : 문화현장 중심, 지역사회내 협력적 리더십 발휘
- 조직구조(Structure) :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

직무평가의 예 : 평가항목의 종류 및 배점

	내 용	배점
지역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역사, 전통문화, 정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인접한 지역의 문화 및 문화원을 둘러싼 문화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20
팀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존중하며 조직구성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20
기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나 계획을 제안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 	20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의사를 논리정연하고 간결하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15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인 바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 -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15
협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사이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 	10

[법, 율, 령, 규칙, 세칙, 조례, 정관, 규정 등에서 조·항 등의 표시 예]

- 조의 표시 : “제○조 ----”로 하고, 표시대로 읽는다.
- 항의 표시 : “①, ②, ----”로 하고, 제1항, 제2항--으로 읽는다.
- 호의 표시 : “1., 2., ----”로 하고, 제1호, 제2호--로 읽는다.
- 목의 표시 : “가., 나., ---”로 하고, 가목, 나목--으로 읽는다.

[부록1]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 들여다보기

1. '지역문화' - 그게 대체 뭐야??

'지역성'(Locality)의 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대정신의 시작점이요, 피와 살이 느껴지는 생활현장의 발견이다. 절대불변의 보편진리를 추구하기에 오직 라틴어로만 집전되는 중세의 보편교회(Universae Ecclesiae)에서는 가난한 시골 지역의 민중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성경이 시골말인 독일어로, 촌뜨기 프랑스말로도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지역교회'(Local Church)가 등장했다. 지역말로 예배가 집전되고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애환을 함께 나누는 교회. 바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 주민들의 공동체 위에 기반하여 지역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문화'(Local Culture)의 발견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4년 7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문화계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지,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참다운 지역문화는 없었다. 그저 중앙정부와 서울 같은 대도시의 문화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수준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수준이 낮은 변두리 문화로 천대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역문화야 말로 그 지역의 도시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자각이 어느덧 싹이 텄다. 바로 지역문화의 탄생이다. 촌뜨기 프랑스말이 유럽의 외교언어가 되듯이 안동사투리와 제주방언이 서울말을 물리치고 주인공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시골말이 그 지역의 문화를 물씬 담고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문화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2. '지역문화진흥법' - 그 핵심은?

'지역문화진흥법'은 총칙,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5개의 장과 보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지역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의 인식이다. 지역성에 기반한다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의미다. 둘째, 생활문화의 활성화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참여해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법에서는 주민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향유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정책이 지역 커뮤니티의 생활밀착형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문화예산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 분	지역문화진흥법 구성내용	시행령 구성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지자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제3~5조 기본계획·시행계획 관련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제7조 생활문화 지원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제6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구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제12조 협력활동 지원	
	제13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8조 자문사업단 지정 등
[제4장] 문화도시· 문화지구 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제16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9~20조 문화도시·문화지구 관련
	제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5장] 지역문화 재단의 설립 등	제19조 지역문화재단 설립 등	제21조 재단의 설립·운영
	제20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제21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23조 기금의 조성실적보고
[제6장] 보 칙 부 칙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지역문화협력위 설치·운영
	제24조 과태료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공포후 6개월 뒤	시행일 2014. 7. 29.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제2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제3~5조),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제6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7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제8조), 문화도시·문화지구 관련사항(제9~20조),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제21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실적보고(제23조) 등이다.

생활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넣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은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되는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에는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이외에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이 포함되어있다. 지방문화원은 문화보급·전수시설로 분류되므로¹⁾ 생활문화시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생활문화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전수가 아닌,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문화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중장기계획 가운데 문화 분야는 미비했다. 이를 강제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있는데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유산과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에 관한 사항들이 빠져있었다. 시행령에서는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지역 간 또는 관련단체 간 협력 및 교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항을 넣어서 이를 보완하였다. 또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도 시행계획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에 따르면 문화 보급·전수시설로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정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자문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양성기관과 자문사업단의 범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지방문화원연합회 이외에 대학과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포함시켰다.

4. 문화도시의 지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시행령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하게 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지구는 문화시설이나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이 밀집되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특성화된 문화행사, 축제 등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리고 해당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초 시·군·구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자자체가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재단과 문화관련 기관·단체들 간에 사업의 범위, 역할정립, 관계설정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시행령에서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 문화협력 및 연계·교류 업무 등으로 한정하였다. 재단이 생활문화 관련사업, 문화환경 취약 지역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업, 지역문화복지에 관한 사업 등 직접적인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기관들과 마찰을 빚기 보다는 이들 문화예술기관·단체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메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되며, 시행령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금의 조성 실적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문화원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문화원이 이제까지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에만 매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재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찌보면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고 커다란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다.

둘째, 지방문화원은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생활문화시설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동네의 폐교나 노후한 시설을 개조하여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화원은 생활문화공간을 꿈꾸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셋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동안 해 온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위에 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영역의 차별화를 이루어갈지 분명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의 생활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문화예술강좌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문화환경 취약지역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 등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아카이브와 지역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인 지역학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핵심은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문화자료를 사용자 중심으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자원화'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 아카이브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부록2]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연구요약



요약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중추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책마련 등 지방문화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연구는 단편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수치분석을 지양하고 지방문화원의 인프라,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네트워크 등 정책여건까지 종합적인 지형도를 전수조사에 기반하여 파악하였으며, 보다 포괄적/객관적/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지방문화원 특색에 맞는 조사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요

분포 지역문화, 향토문화를 가꾸어온 전국 229개 지방 문화원

문화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자체 단위(군, 구)로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별로 '농어촌'(35.8%, 82개), '중소도시'(34.9%, 80개), '대도시'(29.3%, 67개), 권역별로는 [영남권](30.6%, 70개), [수도권](27.9%, 64개), [호남/제주권](18.8%, 43개), [충청권](14.8%, 34개), [강원권](7.9%, 18개)로 전국 각지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행정구역 분포 현황



평균 운영기간은 35.2년

시설유형 문화원 시설유형으로 '임대' 46.7%(107개), '독립원사' 46.2%(106개)

개원년도를 살펴보면, '1960년대'(29.7%, 68개), '1990년대'(26.6%, 61개) 등 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35.2년으로 '20년 미만' 운영해 온 곳이 28.8%(66개)였으며, '50년 이상'(25.8%, 5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 46.7%(107개), [독립원사] 46.2%(106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지자체소유 건물 91.0%로 많았다.

> 영역

작품 및 비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2.5%(74개),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 35.1%(81개)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 문화원이 32.5%(74개),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이 있는 문화원은 35.1%(80개)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문화원은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해 '문화원 경영환경분석'(39.9%), '타 문화원 및 기관 우수 사례조사'(43.0%),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14.5%), '사업성과에 대한 정기점검'(67.1%)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발간자료 문화원 개원 이후 총 7,903종, 총 1,093만여권 발간

자료관리 문화원 행사/프로그램 산출물 자료 등을 보관하는 문화원 80.7%(184개), '발간책자, 자료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자료실'을 운영하는 문화원 71.5%(163개)

문화원 개원 이후 총 발간 자료 종수는 7,903종, 발간 자료 부수는 1,093만 8,353개로 <전체 문화원 기준> 평균 34.7종, 4만 7천 9백여 부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2009-2013)의 발간 종수는 1,972종으로 231만 8,416부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원 행사/프로그램 산출물 자료 등을 보관'하는 문화원이 80.7%(184개)인 가운데, '발간책자, 자료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자료실'을 운영하는 문화원은 71.5%(163개), '자료 대출이 가능'한 문화원이 63.6%(145개),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문화원이 42.1%(96개)로 나타났다.

연간 8,908개 프로그램 운영 (문화원 당 평균 38.9개)

수혜자 수 연간 직접 수혜자 수 778만 2천여명, 간접 수혜자 수 4,704만 9천여명

교육, 공연, 전시, 공모/경연, 지역교류, 향토문화 전승, 위탁사업, 학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문화원이 한 해 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은 8,908개로 '교육 프로그램'이 총 4,593개(51.6%)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원당 평균 3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문화원을 기준으로 직접 수혜자는 연간 778만 2천 16명, 간접 수혜자는 4천 704만 9천 664명에 이르렀다.

< 기준 프로그램 현황 > 단위: 개, 명, 백만원

구 분	기준 프로그램 현황											
	전체	전체 (축제 제외)	교육	공연	전시	공모/ 경연	지역 커뮤 니티	향토 문화 전승 보전	위탁 사업	학술 행사	기타	축제
사례 수	(229)	(228)	(223)	(168)	(146)	(158)	(195)	(153)	(97)	(91)	(3)	(147)
수	38.9	36.6	20.6	4.4	3.1	4.1	3.1	3.7	6.3	1.7	7.7	3.5
(개)												
직접 수혜자 수(명)	33,983	10,339	3,304	4,556	644	1,299	592	941	3,845	495	1	40,710
간접 수혜자 수(명)	231,772	28,246	7,856	9,093	6,594	3,608	1,745	3,496	33,778	5,030	753	343,909
프로그램운영 예산(백만원)	266	191	70	30	9	31	22	29	89	12	53	112

동아리 전국 지방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809개 동아리, 동아리 회원은 2만 2천 여명 수준

문화원 중 동아리가 있는 문화원이 74.6%(170개)인 가운데, <전체 지방문화원 기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는 평균 3.5개(동아리가 있는 문화원 기준 평균 4.8개)로 총 809개의 동아리가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은 <전체 지방문화원 기준> 평균 98.4명(동아리가 있는 문화원 기준 평균 132.8명), 동아리 당 평균 회원 수는 27.7명으로 문화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 수는 전체 22,440명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 91.2%(208개)

총인 전체 홍보건수는 29,028건(평균 113.2건)으로 주요 홍보 매체는 '홈페이지'(85.1%, 194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이 91.2%(208개)인 가운데, '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제공'(97.6%, 201개) 기능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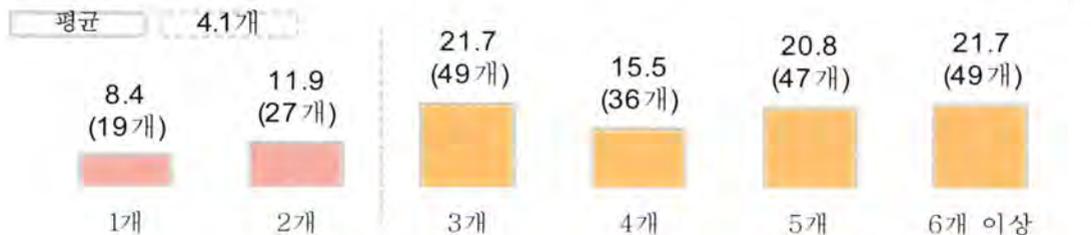
2013년 한 해 동안, 문화원 전체 홍보건수는 29,028건으로 1개 문화원 당 평균 113.2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 50.4%(115개)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화원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지역 문화의 창달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영역

시원 현황 사무실, 강당, 공연장 등 문화별 평균 4.1개 시설 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사무실, 회의실, 향토사연구소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원에서 보유한 세부시설의 수를 알아본 결과, '3개', '6개'(각 21.7%, 49개), '5개'(20.8%, 47개), '4개'(15.5%, 36개) 등 평균 4.1개의 세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시설 보유 수



조직 현황 평균 2.5개 조직으로 구성, '이사회'를 제외한 1.5개의 추가 조직

문화원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법적 기구인 '이사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3개'(32.9%, 75개), '2개'(32.5%, 74개) 등 '이사회'를 포함해 문화원 당 평균 2.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사회'만 있는 문화원은 20.6%(47개)였다.

인력 현황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은 평균 3.0명

문화원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으로 사무국장 포함 '2명'(43.9%, 100개)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회원, 후원회원을 제외한 문화원 정회원은 총 97,841명, 문화원당 평균 429.1명

, 후원회원 등을 제외 한 문화원 정회원은 97,841명으로 문화원별 평균 429.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준회원, 후원회원 등을 포함한 문화원 회원 수는 2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는 진성회원은 65,508명(65.9%)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이용자 수 문화원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는 4백 5만 8천여명 수준

2013년 한 해 동안 문화원을 이용한 이용자는 4,058,509명 수준으로, 연평균 20,497.5명 주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이용자 수 파악이 불가능하여 응답하지 못한 문화원을 감안하면 (응답률 86.8%)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더욱(+60만 여명)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년간 이용자 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문화원이 전체의 57.5%(126개), 평균 기금액은 3억 4천여만원 수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어 기금 지원을 받아왔다.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문화원이 57.5%인 가운데, 기금 조성 문화원 평균 기금은 3억4천여만원으로 전체 기금 규모는 446억7천여만원 정도이다.

>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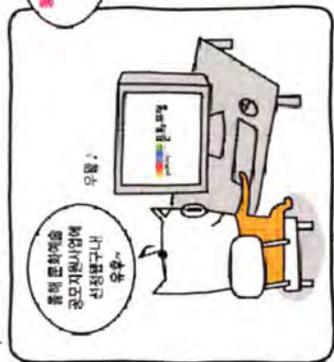
문화원 지원 사업 조례 마련 문화원 56.1%(128개) 중 수익금 사용 조례(22.8%, 28개)

문화원이 위치한 지자체 중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마련한 곳은 56.1%(128개),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 가운데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한 사업 수익금을 문화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한 문화원은 22.8%(28개)였다.

I. 교부신청

II. 집행(지출)

1 지원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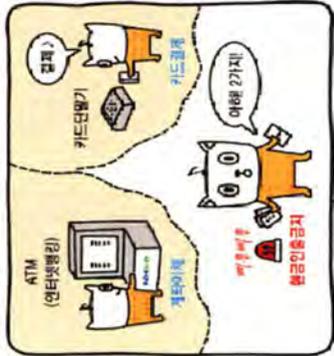
2 교부신청서 준비



1 지원금 집행



2 지원금 집행



3 교부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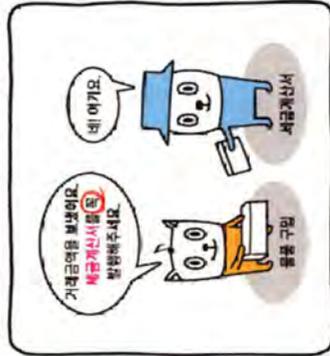
4 교부신청서 제출



3 인건비 집행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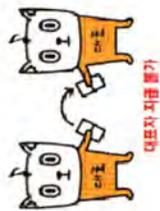
4 예산이내 (예산비등) 집행준



* 지원금의 최소 12%이상 지부담 예산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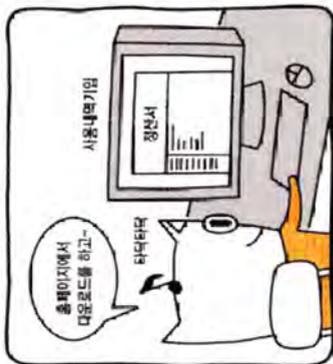
* 지원금의 최소 12%이상 지부담 예산 배정

* 지원금의 최소 12%이상 지부담 예산 배정



III. 정산

1 정산서 준비



* 각기문화재단 문화포털 - 공모지원사업 - 서적지원금
- 정산서 다운로드

2 영수증 준비



* 기부당영수증 증명은 지원금영수증 증명과 동일합니다.

III. 정산

5 잔액 미 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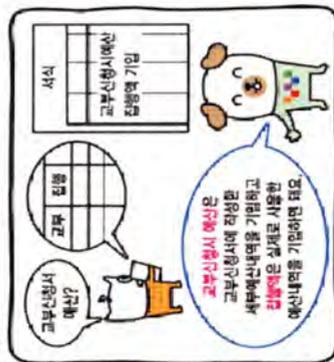
* 잔액 이차 반납계좌 : (농협)011-020-7350-11 (광기문화재단)

3 정산증빙서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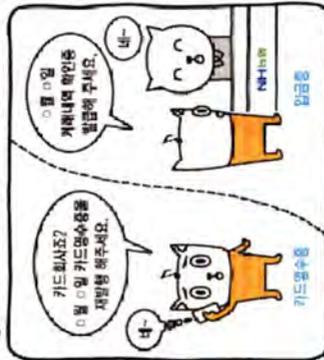
* 원정수영수증을 내부관 영수증을 증명해주세요!

4 정산서 작성



* 발급증 : 후원장영수증 / ATM 영수증 / 연타넷뱅크 이체금고 확인지

6 증빙서류 한 영수증 / 입금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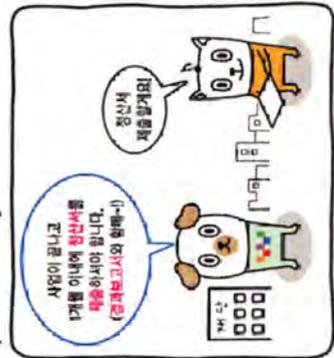


8 정산서 검토 및 완료



*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공공금 부분이 있으면 문예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tel. 031-291-7250 이진성)

7 정산서 제출



* 우편 : 광기도수영사 광양구 인계동 115-1 (7층 문예지원팀)
우편은 봉투 위함이 있으니 용기표 보내주세요~

[부록4

2017년 지방문화원 사업 아젠다 제안

첫 번째 과제: "지역아카이브 구축 - 더는 미룰 수 없다!"

가. 전통을 끌어안지만 말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를 보면 문화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코어와 허브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과거 문화원은 오로지 '과거'의 기록과 유물의 연구에만 매달렸다. '전통문화'는 문화원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개념, 문화의 범주가 확연히 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버거운 것이 오늘날 문화원의 현실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문화유산' 개념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보존'에서 미래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상속'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과거'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나. 이제 '보관'이 아니라 '활용'이다!

또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이나 예술, 문화 등 현재의 생활문화도 미래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담아내는 아카이브 구축이야말로 문화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보관'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발굴과 콘텐츠창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활용'에 중점을 둔 문화콘텐츠 라이브러리로서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추진방안 제안

1) 경기도 문화원만의 색깔 있는 아카이브 구축

- 목표는 지역문화 정보를 시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임. 이를 위한 지역문화 아카이브 표준 매뉴얼을 제시
- 1차적 과제는 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공동의 배너로 브랜드화해서 경기도 지역만의 아카이브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2)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 시민의 입장에서 아카이브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기도 문화원이 공동으로 개발
- 아카이브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제시 필요.²⁾

3) 전문적인 지역문화 아카이브 네트워크 형성

- 지역문화 자료가 집대성된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군 지자체, 지방문화원, 시립도서관, 그리고 민간영역의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과 연동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이런 공감대 위에서 경기도 지역의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 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집약해서 표출시킬 수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사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내년엔 경기도 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사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매년 한 가지씩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라. 아카이브형 콘텐츠 사업 제안

1) 경기도의 다양한 민속을 보여주는 '소리아카이브' 만들기

- 경기도의 지역별 고유한 정서와 민속 문화를 보여주는 소리와 가락(논렘 소리, 상여소리 등)을 10가지씩 선정하여 오디오아카이브를 만드는 사업
- 경기도의 각 지역별 토박이 일상언어를 채록하여 경기방언의 고유한 표현들을 소리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함(2~5인을 선정)

2) 경기도 문화원과 함께하는 '이야기아카이브' 만들기

- 경기도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는 지역별 대표 이야기 10가지씩을 선정해 300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경기도 스토리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

2) 그 한 가지 예로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업기술과 체험들을 빌려주는 인적 자원 네트워크 사업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마포에서 운영되는 숨쉬는 도서관, 서울숲 청소년 리빙 라이브러리,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휴먼라이브러리수원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3) 지역의 대표인물을 새롭게 발굴하는 ‘新 경기문화인물’

- 경기도 지역마다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조명 받지 못한 인물 가운데 21세기 문화가치에 맞는 참신한 인물을 1인씩 발굴하여 21세기 경기문화인물로 확산하는 사업 (예: 제주시의 여성 김만덕 발굴)³⁾

4) 경기도 ‘아카이브 지도’ 만들기 - 소리지도, 이야기지도, 인물지도 등

- 이상 세 가지 분야의 아카이브를 경기도 차원에서 구축하고 그 아카이브의 활용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 리플렛, CD 등으로 만들어 도서관 및 공공기관, 시민에 배포하고 문화탐방에 활용하도록 함

5) ‘경기도 스토리텔링 창작집’ 발간

- 아카이브를 통해 확보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이를 2차 문화 콘텐츠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문화원별로 1개씩 추진
- 웹툰, 미디어아트, 연극, 무용, 인형극, 문화탐방 내레이션 등 공연, 전시를 목적으로 한 대본 형식의 창작집을 경기도문화원에서 발간

6) 제1회 ‘경기도 문화콘텐츠 창작페스티벌’ 실시

- 2차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집 발간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창작콘텐츠 페스티벌 실시(경기도민속경연대회는 전통민속의 발굴, 원형보존에 국한되어 2차콘텐츠화 확대에 한계)
-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필수(내년은 사업 필요성 및 예산확보를 위한 해)

7) 경기도 문화원과 함께하는 ‘우리고을 엿더하니잇고’ 사업

- 이 프로젝트를 경기도 문화원만의 특성화 사업으로 브랜드화해서 추진 (예: 순천의 도시아이덴티티를 브랜드화한 ‘천가지로’ 참조)
- 경기엿더하니잇고의 지역별 버전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겠음(과주엿더하니잇고, 가평엿더하니잇고, 시흥엿더하니잇고, 안산엿더하니잇고 등)

3)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기리는 김만덕기념관 건립. 기녀로 신분 한계를 극복하고 백성을 구출했던 인물

두 번째 과제: “지역학으로의 전환 – 이제는 소명이다!”

가.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하다!

문화원의 강점이었던 전통문화, 향토문화가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할 길목에서 문화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범고창신은 힘겨운 자기부정의 산고를 치루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긴 설명보다는 지방문화원이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할 ‘지역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지난 2월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되었던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고 있는가?’의 다음 내용⁴⁾을 참고하면 좋겠다.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 동향을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뚜렷한 동향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통적인 지역연구 분야인 'region 연구 관점'(가치중립적인 지방 연구)에서 'local 및 space 연구 관점'(지방 및 공간사회학적 관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고 모순적인 지역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지방학자들에게 그 실상을 고발하고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동과 교류의 일상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광역화, 그리고 비슷한 생활양식의 공간적 확산 등으로 오늘날 지역의 정체성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그 결과 지역연구의 정체성도 미망에 빠져 든 것이다. 단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인정되고, 확인될 뿐, 그 밖의 지방과 지방, 농촌과 농촌,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의 차이가 경험적으로 두드러지게 확인되질 않는다. 삶의 물리적 환경과 경관마저도 급속히 동형화되고 있다.

..시기와 시대를 가로질러 항용 나타나는 정체 위기를 넘어 지역연구가 나름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은 없을까? 아마도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의 내부 문제로 시야를 돌려 '현장 문제' 중심의 사례연구를 활성화하는 길일 것이다.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훨씬 적극적인 방법은 각각의 지역(지방)이 특색 있고,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여 나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길이다. ...지역연구는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앞으로의

4) 출처 : 김영정(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제15집 1호(2014): pp.163-199

삶의 방향을 암시해야 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지역발전 모습이 무엇가를 제시해야하는 실천적 목표를 무시할 수 없다.

나. 지역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학’은 지역연구를 가리키는 말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와 인문환경을 아우르는 지역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말한다. 지역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면서 나아가는 장소로, 그리고 각자의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역학은 지역주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생활사를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역사의 사료와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관습이나 민속, 전승, 구전설화와 마을사, 개인의 구술생애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학습의 주된 원천이자 장으로 존재하며 평생학습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평생학습은 그저 어느 곳에서도 별 차이 없는 평생학습에 그쳤을 뿐, ‘지역’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했다. 이런 평생학습이라면 지역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평생학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근거해야 할 터전이 지역이며, 평생학습의 주인은 지자체나 전문가, 공무원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 ‘지역학습’은 지역학의 전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개념이다. 지역을 알아가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 . 삶의 냄새가 풀풀나는 주민 삶의 현장에 주목하자!

그동안 지역의 역사에 주민의 삶과 애환은 없었다. 실록, 읍지류 같은 기록물에 주로 의존해왔던 향토사에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힘들다. 권력의 역사를 견어치우고 이제는 삶의 냄새가 풀풀 나는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록해야 할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여야 한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낳고 길러온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딸들의 이야기, 농부와 대장장이와 씨름꾼의 이야기,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고 세대

에서 세대로 삶을 이어왔던 이천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기록된' 이야기보다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원래 책에 기록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몸에 있었다. 몸에 배어 있고 삶에 배어있고 그들의 아픔 속에,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 녹아있었다. 그것이 최근 구술사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 뻗뻗한 전통을 부드럽게 만들 책임은 문화원에 있다!

지역을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자원으로, 행정구역이 아니라 콘텐츠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지역을 다시 읽고, 다시 그려보고, 다시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 단위에서 지역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1) 경기도 문화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바로알기 교과서' 발간

- 기존의 방대한 시군지는 너무 방대. 따라서 전체를 개관하여 학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권(100~220쪽) 분량의 지역학 교과서를 발간
- 지역학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통일시키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 구축한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콘텐츠로 입력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임

2) 문화원 브랜드사업으로 '문화이야기꾼' 양성

- 정부의 문화콘텐츠 정책 기조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⁵⁾ 기존방식의 문화해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소통하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지역 이야기꾼을 양성

3) '지역알기 프로그램' 실시 및 색깔 있는 '문화탐방 가이드북'(지도) 만들기

- 지역학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역알기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 중심 문화탐방 가이드 북(맵) 만들기
(예1: 순천 원도심여행 안내서, 순천시 도시재생 천가지로 맵, 순천 유희자원조사 가이드북 등)

5) 2016년 8월 초 문화부는 '이야기산업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스토리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 자산. 따라서 스토리를 산업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대통령 지시사항-

(예2: 부산영도문화원의 대평동 짹짹이길 문화 탐방지도, 흰여울 따개비마을 지도 등)

4) 지역학 전문가 육성

- 기존 향토사, 향토문화를 지역학 개념으로 전환하여 추진
- 지역학 전문가 육성 분야 : 연구분야, 활용분야, 교육분야
- 그동안의 경기 '향토문화연구'도 경기 '지역문화연구'로 전환 필요

5) 문화원이 주축이 되는 지역문화 일자리 만들기

- 문화원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 필요가 있음
- 문화 분야에서 이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 이야기꾼 네트워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세 번째 과제: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허브, 생활문화의 플랫폼!”

가. 생활문화에 문화원은 감이 없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일상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문화원은 이런 자발성과 일상성을 얼마만큼 치열하게 고민해 왔었나?

최근 들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중요해지면서 주민 중심, 생활현장 중심의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예술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하면서 이를 지역사회에 창조적으로 실천해보려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란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공동체에 고유한 문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새롭게 소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시설이나 공간,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축제, 관광과 문화산업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획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려는 문화주체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처음이 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공동체는 이러한 인식변화에 근거하여 확산되고 있다.

문화원이 그동안 주민과 접점을 이루어온 사업이 문화학교와 어르신문화학교였다. 하지만 냉정히 문화원에 대한 현실인식을 고백해보자. 문화원은 20여 년 전 당시 문체부 사업으로 문화학교를 처음 지역사회에 도입했다. 그때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과 기술을 전수하거나 자격 취득을 위주로 하는 강좌, 또는 취미교실, 강사 중심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문화학교를 아직도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생활문화를 논함에 있어서 문화원의 강점이 되겠는가? 아니면 약점이 되겠는가? 문화학교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가지고 문화원은 과연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문화학교 사업에 녹여낼 수 있을까? 문화학교를 통해 형성된 동아리를 생활문화 동아리로 진화시킬 수 있

을까? 문화학교 강좌의 대부분이 문화예술강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전략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한참은 빛나갔다.

나. '문화원' 너머, '전통' 너머에 '주민'이 있고 '생활문화 현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현장에서는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 중심, 단기간 성과 중심의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자원을 성급하게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고려 없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문화시설을 우선 건립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의 삶에 녹아드는 주민참여와 주민중심, 주민주체의 생활문화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문화원이 추진해왔던 어설픈 정책과 사업을 미련 없이 떨쳐내야 한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주민 역할을 강조하거나 대책 없이 주민을 앞장세우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문화, 생활문화의 본질과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를 촉진하고 매개해야 할 역할을 문화원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생활문화예술은 공연장이나 전시장과 같은 구별된 문화공간 너머에 있고, 주민을 더 이상 관객이나 관람자의 자리에 앉히려는 태도 너머에 존재한다. 사적 인식 수준에 머물면서 문화를 수동적으로 향유하거나 소비하는 성격의 동호회나 동아리 조직을 어떻게 공공적 공동체적 인식의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끌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문화원이 벗어나지 못하는 선입견이 하나 있다. '예충은 프로, 문화원은 아마추어' - 이 말이 맞는가?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주요 공연이나 전시, 예술 활동의 중심에는 전문성을 갖춘 예충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편견이 있다.

과연 그런가?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 태도이다. 전문예술인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자신의 학생들이 전문인이 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예술가 중심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떨치지 못하는 한 그를 생활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사업 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의 하위 범주도 아니고 프로 대 아마추어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제안

1) 지역 내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창출

- 도서관, 문화원, 미술관, 전철역사 등 지역 내 유휴시설과 공간을 찾아내어 자료화 하고(자료수집 및 정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
- 경기도 전체문화원이 참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제시

2)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및 활동기반 제공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문화학교 혁신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매년 2개 사업 선정)
- 경기도 31개 문화원 간 생활문화동아리 정보를 공유하고 각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행사, 축제, 사업 등에 연계하여 초청하여 공연기회 제공
-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문화동아리 인큐베이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임마의 아이들, 재밌음공으로 스토리와 리듬을 엮다

마을 아이들, 슬바위 전설로 공연을 민들다

통장님들, 마을 쓰레기 문제를 함담으로 푼다

입력덜덜 앙동이 너타, 통장님들의 스트레스를 날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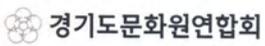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보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SNS도 중요하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소식을 어떻게 가공해서 정보가치를 창출해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ICBM(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바탕으로 한 소셜 큐레이션 성격의 플립보드 서비스⁶⁾를 시도
-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 프로그램, 공연, 전시 내용을 그냥 데이터나 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음
- 문제는 이러한 정보 내용을 이용자 관점에서 고도의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정리, 배열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큐레이션하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 소셜 큐레이션 성격의 플립보드를 구축하여 경기도민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⁷⁾

6) 플립보드(Flipboard)sms 한 곳에서 뉴스를 따라잡고, 관심 있는 토픽을 팔로우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스토리와 비디오,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SNS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음.

7) 현재의 문화원연합회 소식지 맨 마지막에 실리는 '지방문화원 행사일정'이 무의미한 문화정보 제공의 한 예임. 단순한 정보 나열식의 관리자 중심 사업홍보는 문화원의 올드한 이미지를 더욱 가중시킴.

Memo



본 책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책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허락없이 무단도용할 수 없습니다.